

북부 베트남 소수종족의 지방사와 종족정체성:

호아빙(Hòa Bình)성 마이쩌우(Mai Châu)현 타이(Táy)족
마을의 사례*

최 호 림**

요약

이 연구는 마을 주민들의 경험과 기억에 초점을 두고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베트남 북서부의 한 소수종족 마을의 지방사를 통해 종족정체성이 규정되어온 복합적인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특히 호아빙성 마이쩌우현에 이주 정착한 타이족의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식민시대부터, 전쟁, 사회주의 개혁 이후에 이르기까지 종족 내 계급분화, 종족 간 관계, 국가-종족 관계의 역동적인 성격에 관하여 탐구한다. 이 연구는 마이쩌우의 타이족이 국가의 종족분류체계나 외부 관광객의 시선에 따라 고유한 전통문화를 가진 원시적 부족이라는 이미지로 고정되어 왔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독특한 종족으로 규정지어 왔다는 점을 고찰한다. 타이족은 국민국가에 속하는 하나의 소수종족으로서 국가의 영향 안에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스스로도 분명히 구별되는 독립된 종족으로 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규명하기 위해 타이족 내부에 계층적 분화와 불평등이 존재하고 타이족 자신들만의 주체적인 삶을 개척하기 위한 어젠다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이족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부경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C-D-2015-1259)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조교수

의 일상생활에서 스스로의 능동적인 역할, 즉 ‘파이 에이전시’(Táy agency)가 작동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종족 내부에 계급적인 분화와 불평등도 존재하고 파이족 자신들만의 어젠다가 있다.

주제어: 베트남, 소수종족, 마이쩌우, 타이(파이)족, 지방사, 종족정체성

I. 서론

이 연구는 마을 주민들의 경험과 기억에 초점을 두고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베트남 북서부의 한 소수종족 마을의 지방사(local history)를 통해 종족정체성(ethnic identity)이 규정되어온 복합적인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특히 호아빙(Hòa Bình)성 마이쩌우(Mai Châu)현에 정착한 파이(Táy)족의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식민시대부터, 전쟁, 사회주의 개혁 이후에 이르기까지 종족 내 계급분화, 종족 간 관계, 국가-종족 관계의 역동적인 성격에 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마이쩌우의 파이족 마을은 1990년대 이후 베트남 관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대표적인 소수종족 관광마을 중 하나이다. 특히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고산 종족의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종족관광’과 ‘문화관광’ 패키지를 통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국제관광객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¹⁾

베트남 소수종족의 문화와 종족정체성은 주로 국가의 영향과 지배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 왔다. 오늘날 마이쩌우의 파이족 또한 공식적인 종족분류체계와 다종족 통합정책, 그리고 국가적 수준의 사회경제 개발정책을 비롯하여 국가의 영향력 확장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국민적 소수종족’(national minority)이라고 할 수 있다(Taylor

1) 베트남 고산 소수종족 관광이미지에 관해서는 최호림(2017) 참조.

2008, 4). 소수종족의 삶은 여전히 스스로의 잣대나 목소리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담론이나, 주류 종족 혹은 관광객을 비롯한 외부의 전형화된 시각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최호림 2012, 530). 베트남 소수종족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소수종족의 지배적인 이미지는 예속되고, 지배집단의 규율로 혼육되고 제한된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다(Taylor 2008, 5-6). 베트남 국가가 점차 고산 오지를 개발하고 행정 네트워크를 확대해온 과정에서, 마이쩌우의 파이족 또한 자신의 생계와 문화적 관행들이 국가의 승인이나 금지, 강제적 변화 등의 의해 규정되어 온 소수종족에 속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마이쩌우의 파이족이 국가의 종족분류체계나 외부 관광객의 시선에 따라 고유한 전통문화를 가진 원시적 부족이라는 이미지로 고정되어 왔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독특한 종족으로 규정지어 왔다는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파이족은 국민국가에 속하는 하나의 소수종족으로서 국가의 영향 안에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스스로도 분명히 구별되는 독립된 종족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규명하기 위해 파이족 내부에 계층적 분화와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파이족 스스로의 주체적인 삶을 개척해 왔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이족의 일상생활에서 스스로의 능동적인 역할, 즉 ‘파이 에이전시’(Táy agency)가 작동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필자는 베트남에서 파이족이 하나의 소수종족으로 구분되어 온 것은 파이족과 국가 간 관계뿐만 아니라, 파이족과 여타 종족, 그리고 파이족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와 협상의 과정에서 진행되어 온 것으로 인식한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와 협상은 고산지역이라는 특정의 환경에서 식민주의, 전쟁, 사회주의 개혁, 시장제도의 도입과 같은 일련의 역사적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그러한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지방사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마이쩌우는 하노이 도심에서 서쪽으로 70km 거리에 있는 호아빙시(Thành phố Hòa Bình)를 지나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 65km 정도를 더 달려야 닿는다. 마이쩌우는 호아빙성의 10개 현(Huyện, district) 중의 하나이고, 현인민위원회가 소재한 마이쩌우티쩐(Thị trấn Mai Châu)과 22개의 ‘싸’(Xã, commune)로 구분되어 있다. 호아빙성은 1975년 12월 하띠이(Hà Tây)성과 합쳐져 하썸빈(Hà Sơn Bình)성이 되었다가 1991년 8월 다시 호아빙성으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9년 인구 센서스 결과 호아빙성의 인구는 808,200명이고, 마이쩌우현은 55,663명이 거주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마을 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이다. 필자는 2016년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동년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각각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기간에 약 20명의 노인과 중년층 주민들과 심층 면담하였다. 필자는 마이쩌우의 유명한 소수종족 홈스테이 관광촌인 락마을(Bản Lác)을 중심으로 찌엥쩌우싸(Xã Chiềng Châu)에 속하는 모마을(Xóm Mỏ) 찌엥쩌우마을(Xóm Chiềng Châu)등 인근 마을을 방문하여 주로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²⁾ 주민들의 구술에 등장하는 장소와 생활상을 관찰하기 위해 마이쩌우티쩐의 시장과, 마이히(Xã Mai Hịch)을 비롯한 인근 마을에도 방문하였다.

2) “Hòa Bình” https://vi.wikipedia.org/wiki/H%C3%B2a_B%C3%ACnh; 호아빙성인민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oabinh.gov.vn/> (최근 검색일: 2017년 6월 23일). 락마을(Bản Lác)은 마이쩌우현 22개 싸(xã, commune) 중 하나인 찌엥쩌우싸(Xã Chiềng Châu)에 속하는 여섯 개 자연마을 중 하나이다. 베트남 사회주의정부의 지방행정개혁 이후 호아빙성에서 인민위원회가 설치된 ‘싸’이하의 자연마을은 모두 ‘솜’(Xóm)이란 베트남어로 불리지만, 마이쩌우 주민들 대부분은 여전히 종족언어인 ‘반’(Bản)을 붙여 부른다.

〈표 1〉 심층면접자 목록

이름(가명)	출생년도 ³⁾	성별	직업 또는 (과거) 지위	최초 면접일	비고
카인(Khanh)	1943년	남	하꽁(Hà Công) 귀족 출신	2016.7.13	주제보자
꾸인(Quynh)	1935년	남	귀족 출신	2016.7.14	주제보자
르우(Luu)	1936년	남	홈스테이	2016.7.14	주제보자
잔(Ran)	1925년	남	홈스테이 / 노예	2016.7.17	
씨안(Xian)	1932년	남	귀족집안 아들	2016.7.16	
루언(Luan)	1938년	남	농민/노예출신	2016.12.23	
히엵(Hiep)	1941년	남	기념품점	2016.7.15	
멘(Men)	1945년	남	하꽁(Hà Công) 귀족 출신	2016.7.14	
무(Mu)	1947년	남	미상	2016.12.26	
히엔(Hien)	1948년	남	락 마을 지도자	2016.7.13	
땀(Tam)	1954년	여	귀족 출신 자녀	2016.12.23	
빙(Binh)	1957년	남	홈스테이	2016.12.26	Luu씨 아들
닝(Ninh)	1962년	여	농업	2016.7.17	
퉁(Tung)	1965년	남	농민회 간부	2016.12.23	

<표 1>은 본문에 등장하는 면접자의 목록이다. 대부분 두세 차례 만나 비구조적 질문을 통한 구술사(oral history) 위주의 면접을 하였고, 주제보자 역할을 한 노인들은 여러 차례 만났다. 일부 노인들은 여전히 다이어를 사용하고 베트남어를 온전히 구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제보자 역할을 한 주민들과 동행한 여행가이드의 통역 도움을 받아야 했다. 주제보자 역할을 한 세 노인은 타이족의 마이쩌우 이주 정착과정에 관한 상세한 역사를 알고 있었고 개인적인 기록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을 통해 종족 내부의 계급관계나 지위의 변화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은 다른 주민들의 경험이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었고, 사람들의 성격이나 성향 혹은 이에 관한 개인적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들을 통해 다른 많은

3) 출생년도는 신분증에 기입된 생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 출생년도는 이와 다른 경우가 많았으며 정확한 출생년도를 알지 못하는 노인도 일부 있었다.

주민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2017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필자는 보충조사를 위해 마이쩌우를 다시 방문하였다. 이와 아울러 타이족을 비롯한 베트남 북부지역 고산 소수종족의 역사와 생활문화에 대한 기존 연구문헌을 검토하여 참고하였다.

본문에서는 먼저, 국가의 종족분류체계 하에서 타이족의 구성에 관해 기술한다. 둘째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14세기 이후 1940년대까지 타이족이 마이쩌우의 마을에 이주하여 정착한 과정에 관하여 서술한다. 특히, 초기 정착과정에서 타이족의 생활과 계급구조의 양상을 통해 종족정체성 규정의 복합적인 면모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로, 마을 노인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1945~1954년 기간에 해당하는 민주주의 혁명과 프랑스 항전의 격변기에 대해 재구성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강제이주 및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쓰어이’(xuoï), 즉 저지대 주류종족의 이주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⁴⁾ 집단화 농업개혁과 ‘항미전쟁’ 시기의 경험과 아울러 사회주의적 의례개혁 과정과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경험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종족분류체계와 마이쩌우의 타이족

베트남 독립과 사회주의 혁명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근거하여 “평등, 연대, 상호존중의 정신”을 표방하며 소수종족의 통합과 종족 간 관계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소수종족 집단을 분류하는 체계를 구성한 것이다(Nguyen Van Thang 2007, 14-15). 여전히 많은 논란이 남아 있지만, 주로 언어, 문화적 특질

4) ‘쓰어이’(xuoï)는 타이어 용어로 주로 홍하 델타 지역의 저지대나 평야에서 이주한 비엣족을 일컫는 말이다. 이글에서 타이족 주민들이 언급한 타이어 용어는 베트남어 성조표기 없이 기호기체로 기재하였다.

과 종족 자의식을 기준으로 인구센서스를 활용하여 개개 종족집단을 명확하게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최호림 2012, 532-537). 구분의 기준과 범주들은 이전 프랑스인들이 인도차이나의 인구를 종족적 범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를 계승한 것이다. 베트남 정부에 의해서는 1959년에 처음 63개 종족으로 분류체계가 만들어졌으나, 1974년에 59개 종족으로 수정되었다. 이후 1979년 3월 “베트남 종족집단의 명명법에 관한 121호 결정”이 발표되면서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54개 종족집단으로 구성된 국가라고 선언되었다(최호림 2012, 535-536). 이것이 오늘날에까지 공식적인 분류체계로 사용되고 있다.

종족분류를 위한 ‘과학적’, 정치적 프로젝트는 사회구성체의 발전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의 보편 진화론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베트남에서 “전퓌티에우쏘”(dân tộc thiểu số), 즉, 문자대로는 ‘소수민족’이라고 불리는 고산지역 거주자들이 낙후되고 무지한 야만인이거나, 생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쁘(Kinh)족보다 낮은 수준인 ‘원시적 부족’으로 간주되었다.⁵⁾ 1960년 제3차 공산당대회에서 지도자들은 베트남 인민의 전반적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공산당과 국가는 ‘고산지역이 평야지방을 따라잡고 소수종족이 비엠티족을 따라잡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Hoang Cam 2006, 178). 종족분류 프로젝트는 전국의 소수종족 생활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주었다. 이것은 모든 종족의 균등한 발전과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원칙에 따른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 종족의 생활과 문화적 특징 중에 보존되고 고양시켜야 할 것을 선택해야 했다.

베트남에서 타이족의 공식분류 명칭은 ‘타이’(Thái)이며 ‘파이’(Táy)

5) 베트남에서 소수종족을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와 이러한 용어들의 혼용 문제에 관해서는 즐고(2012, 532-533)에서 논의한 바 있다.

는 타이족 스스로가 부르는 이름이다. 두 용어가 함께 통용되고 있다.⁶⁾ ‘타이’족은 크게 ‘화이트 타이’(White Thái)와 ‘블랙 타이’(Black Thái)라는 두 가지 주요 하위 그룹으로 구분된다(Dang Nghiem Van et al 2010, 126-30). ‘화이트 타이’는 타이족 스스로는 ‘파이카오’(Táy Khao) 혹은 ‘파이돈’(Táy Đôn)이라고 칭하는 집단이고, ‘블랙 타이’는 ‘파이담’(Táy Dăm)으로 부른다. 즉 두 하위집단의 분류가 타이족 스스로의 구분에 따른 것이다. 하위집단들은 이주역사, 방언, 의복 등에서 서로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타이족 스스로 구분하는 또 다른 하위 그룹으로는 ‘파이텡’(Táy Đeng), 즉 ‘레드 타이’(Red Thái)도 있다. 그 외에도 파이찌엥(Táy Chiềng), 파이프엥(Táy Mưong), 파이타인(Táy Thanh), 파이프어이(Táy Mưòi) 등이 있다(Dang Nghiem Van et al 2010, 126). 그러나 이러한 하위집단들은 1979년 종족분류체계가 확정된 이후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Nguyen Van Thang 2007, 183-192 참조). 현재는 대신에 거주 지역에 따라 서로를 구분하여 부르는 경우가 흔했다. 가령, ‘마이쩌우 파이’, ‘목쩌우 파이’(Táy MỘC Châu), ‘라오스의 파이’(Táy Lao) 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현재 마이쩌우 타이족은 화이트 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프랑스 식민시대에는 레드 타이 또는 블랙 타이와 섞여 있는 종족으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실제 주민들 사이에도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하위 타이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⁷⁾ 이렇게 복잡한 종족분류 방식은 마이쩌우의 타이족이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나 다른 종족들과 맺어 온 복합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한편, 어떤 하위 집단으로 불리는 것에 상관없이 마이쩌우의 타이족은 ‘파이’라는 이름

6) 주민들 중에는 타이족을 ‘Tai’로 적는 경우도 많았고, 일부 베트남 민족학자도 ‘Tai’라고 적고 있다(가령, Nguyen Van Thang 2007, 190).

7) 이로 인해 타이족에 대한 문헌에는 화이트, 블랙, 레드 타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이들을 지칭하고 있다(Allan 2011, 75-76 참조). 베트남의 종족명명법과 분류체계에 여전히 많은 혼란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파이족은 오랫동안 계급사회의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대개 ‘따오’(tao), ‘빠이’(pay), ‘꾸옹’(cuong)의 세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각 귀족, 평민, 노예 계급에 해당한다. 노예계급은 ‘싸’(xa)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 파이족 노예와 비파이족 노예가 있었다.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서로 격리되지 않고 공동체를 구성해왔다. 주민들이 구술하는 마을의 역사와 각자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에는 귀족의 관점에 의한 마을의 역사와 평민의 관점에서 본 마을의 역사가 들어 있었다.

귀족계급은 혈통에 따라 세습되어 왔다. 마이찌우에는 ‘하퐁’(Hà Công)이라고 불리는 귀족의 후손 가족이 남아있다. 19세기 전까지 귀족계급의 구성원만이 읽고 쓰는 것이 허용되어 기록과 문서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초기 역사에 관한 핵심적인 자료는 대부분 하퐁 가족의 기록과 역사에 해당한다. 필자는 그 후손 중 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마을지도자 역할을 했던 카인(Khanh, 1943년생)씨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마이찌우에는 하퐁 가족 외에 귀족계급에 속했던 최소 네 개의 친족집단이 남아 있다.⁸⁾

Ⅲ. 이주와 정착과정, 계급분화와 종족관계

파이족의 조상은 원래 오늘날 중국 남부지방에서 출신으로 믿어지는데, 처음에는 라오까이(Lào Cai)성 박하(Bác Hà)의 ‘카의 무앙’(muang Kha)이라고 불렸던 곳에 정착했다. ‘무앙’(muang)은 타이어로 소국

8) 마이찌우의 파이족 중에는 쩡(Kinh)족의 성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도 적지 않은데, 이들은 대개 파이족과 혼인하여 마이찌우에 정착한 가족이다. 마이찌우에는 소수의 므엥(Muong)족도 거주하고 있다.

(principality)을 의미한다. 마을주민들이 구술로 전하는 이야기에는 14세기 처음엔 두 형제를 따라 일군의 파이족이 출발하여 이주를 시작한 이후 마이쩌우에 정착하기까지 약 700년의 역사가 담겨있다. 이들은 홍하(Sông Hồng)를 따라 이동하여 델타지역에 도착하여 비엣족 마을을 지나야 했다. 다음에는 다강(Sông Đà, 일명 Black River)을 지나 현재 호아빙으로 알려진 중원지대에 가서 므엉(Muong) 족 지역을 지나갔다. 그리고 이동을 계속하여 형과 일부 파이족은 오늘날 썸라(Son La)성의 목쩌우에 정착하였고, 둘째가 나머지 파이족을 이끌고 현재의 마이쩌우에 정착했다고 한다. 마이쩌우에 정착한 이후 일부는 다시 이동하여 현재 타인호아(Thanh Hóa)성의 바트억(Bá Thước)까지 이동하였다. 파이족이 마이쩌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싸’(xa)라고 불리는 다른 종족에 속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들과 토지를 둘러싸고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⁹⁾

파이족 이주자들은 경쟁에서 승자가 되어 토지를 차지하였고, 현재의 찌엥쩌우마을 뒷산 쪽으로 활을 쏘아 맞힌 사람을 바위 절벽에 붙여 매달아 놓았다고 한다. 싸 사람들은 동으로 만든 화살을 쏘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쉽게 땅에 떨어졌지만, 파이족은 화살의 끝에 벌의 밀초를 발라서 쉽게 달라붙도록 만들었다. 결국 파이는 계곡의 농지에 정착할 수 있었고, 싸는 쫓겨나 더 깊은 산지로 이동해야 했다.¹⁰⁾

파이족이 성취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 ‘밸리컬취’(valley culture), 즉, 고산 골짜기 마을에서 정착농경 문화를 발전시

9) 싸(xa 또는 sa)라는 용어는 타이어로 카(kha)와 같이 ‘노예’라는 의미이다. 이들이 원래의 인도차이나 토착선주민(aboriginal Proto-Indochinese) 또는 오스트로아시아어족계(Austroasiatic) 종족이었으나 파이족이 이주하여 정착하면 이들을 대체하게 된 것이다(Allan 2011, 77). 싸나 카는 과거 파이의 위계체계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해당하였다.

10)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베트남 인류학자의 저술에도 등장한다(Dang Nghiem Van 1988, 41).

킨 것이다(Cam Trong 1999, 11-12). 특히, 고원의 분지에 터를 잡고 적응하며 관개수로망을 건설하고 수경농법으로 벼를 경작하여 쌀을 주식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숲을 활용하여 식량과 약재를 구했고 대나무를 비롯하여 목재를 활용하여 주로 주상가옥을 건축했다.

“주상가옥은 침대를 쓰지 않는 우리 생활에는 매우 편리하다.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주로 거친 황무지에 집을 짓고 인구조도 소규모여서 자주 사자나 호랑이 같은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아 많은 가족이 죽었으나 이제는 가족을 집 아래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호랑이나 사자가 접근하여 집 위에서 아래로 바위나 큰 돌을 던져 쫓아낼 수 있다.”(Mu 씨, 1947년생)

파이 사회의 정치구조는 무앙(*muang*) 체계에 근거한 것이었다. 무앙은 ‘특정 신분의 영토’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소공국이거나, 혹은 여러 개 마을(*ban, bản*)과 하나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찌엥’(*chieng*), 그리고 한 명의 최고 통치자로 구성되었다. 통치자는 ‘짜오 무앙’(*chao muang*), ‘짜오 딘’(*chao din*) 또는 ‘피아 무앙’(*phia muang*)으로 불렸다. 무앙은 산간의 외딴 영토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는 매우 작은 국가에 해당하였다(Nguyễn Huu Thuc and Ha Sum 1988, 13-14).¹¹⁾ 보통 몇 개의 조공관계에 있는 무앙이나 작은 무앙들로 하나의 큰 무앙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형제 중 둘째가 마이찌우에 정착하여 무앙을 구성하였고, 그의 무앙은 계곡을 따라 흐르는 천의 이름 ‘문’(*Mun*)을 따서 ‘무앙 문’(*muang Mun*)이라고 이름 붙였다. 무앙 문은 점차 많은 작은 마을들을 포함하게 되었고 여러 작은 규모의 무앙들과 함께, 중심지에 해

11) 한 무앙의 실제 규모는 매우 다양하지만 정치구조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미얀마의 샨 스테이트(*Shan state*), 라오스, 베트남, 남중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파이 공동체에서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Cam Trong 1999; Nguyễn Huu Thuc and Ha Sum 1988, 13-14).

당하는 찌엥사이(*Chiêng Sai*)와 찌엥쩌우도 포함하게 되었다.

모든 따이 공동체에서 보다 큰 무앙의 통치자가 조공관계에 있거나 작은 규모의 무앙의 통치자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 통치자는 높은 서열의 귀족 중에서 선택되었으며, 흔히 ‘족장’으로 불렸고, 큰 무앙의 경우 군주나 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가장 높은 서열의 통치자 이름은 따이어로 ‘안냐’(*an nha*, 혹은 *an na*) 또는 ‘파냐’(*pha nha*, 혹은 *pha na*)였다(Cam Trong 1999, 10). 따오는 벵농사를 위한 협업을 조직하고 숲에서의 생산 작업도 상당 부분 조절하였다. 아울러 전쟁에서 통솔권을 가졌고 무앙을 대표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고 신들에 대한 종교적 제사장 역할도 했다. 그러나 따오 계급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다. 자신들에게 할당된 논도 소유하지 않았고, 대신에 토지와 논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행사했다. 논은 무앙 공동소유의 자산으로 규정되어 토지를 할당받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경작권을 가졌다. 따오 계급은 무앙의 법에 따라 공동 경작 논을 분배하는 권리를 가져 무앙의 공동체적 소유권을 보호하였다. 마을(*bản*) 수준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었는데 논을 비롯한 마을의 경작 토지는 모두 해당 반의 공동 자산이었다.

무앙 내의 각 반은 명확하게 고정된 경계가 있었고, 하나의 반은 숲, 경작지, 모지와 저수지, 천이나 연못 같은 수원을 비롯하여 여러 섹터를 포함했다(Trinh Quoc Su 2000, 12). 개개 반은 ‘후온’(*huon*)이라 부르는 여러 개의 가구로 이루어지고 개별 가구는 핵가족 혹은 확대가족이 거주했다(Hoang Cam 2001, 84). 혼인 후 분가를 하는 것이 관습이어서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는 핵가족이지만, 대부분의 가족생활과 관계에는 확대가족의 역할이 중요했다. 혼인 후에도 일정 기간 분가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살다가 다른 형제가 혼인하면 분가하는 순환적 직계확대가족 형태가 많았다.

무앙이나 반의 실제의 대증은 ‘빠이’(*pay*)였는데, 이는 귀족과의 관

계에서는 평민에 해당하고 노예 계급과 대비하여서는 자유인이었다. 빠이는 논을 공동 소유하는 권리를 가졌고 공동체의 의사결정과 군사 활동에 참여하였고, 빠이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은 관료가 되었고, 관료가 되지 않은 평민은 부역의 의무가 있었다. 빠이는 모든 사회적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였고 공동 경작논의 경작에 참여할 권리와, 사냥, 어로, 수목재배 등 생계를 위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다만 군주나 통치자가 사용하거나 보유해야 할 생산물에 대한 접근 권리는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대신에 빠이는 일정 기간 동안 귀족을 위해 부역에 종사해야 했고, 세금도 납부해야 했다(Condominas 1990, 60, 108). 이들은 전사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몇 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일부의 평민들에게는 일종의 특권이 부여되어 여러 마을들에서 인력을 활용할 권리가 있었다. 이러한 지위에는 ‘모’(mo)라고 불렸던 종교적 사제나 영매가 있었는데 이들을 종교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군주의 핵심 고문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마을 유력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주의 명령을 집행하는 책임과 함께 인력의 조직하는 것과 관련된 책임에서 중간자 역할을 했다. 마을 유력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위의 순서에 따라 송(song), 쑤(su), 찌엔(chien), 짜(cha) 등 네 가지 등급이 있었다(Allan 2011, 79-80). ‘빠이’는 주로 이들을 통해 공동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

파이 사회의 정치적 위계에서 가장 낮은 등급에는 노예가 있었다. 노예층은 두 가지 넓은 범주로 구분되었는데, 하나는 파이족 혈통에 속하는 노예인 ‘꾸옹’(cuong 또는 kuong)이고 파이족에 속하지 않는 노예는 ‘싸’(xa)였다. 파이족 노예는 한때는 평민이었지만 가난으로 인해 군주나 귀족층에 종속되면서 노예로 전락한 경우이다. 노예는 공동경작에 참여할 권리와 함께 반이나 무양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주인이 자신을 팔아치울 수도 있고 해방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인의 변덕에 좌지우지되는 존재였다. 또한 ‘타르’(tar) 또는 ‘탓’(that)이라고 불리는 세습노예도 있었는데, 이들은 대를 이어 계속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 ‘꼰 후온’(con huon 또는 kon huon) 또는 ‘코이’(khy)라고 불리는 타이족 노예는 특히 군주의 집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노예였다. 타이족 노예는 비(非)타이족 노예보다 지위가 높았다. 주로 전쟁에서 패전하여 노예가 된 싸는 최하위 계급으로 가장 많이 착취당했다. 그들은 무양에서 가장 힘들고 역겨운 일을 해야 했고 공동경작지에 접근할 권리가 없었다(Allan 2011, 80-81).

카인(Khanh)씨는 타이족의 마이쩌우 이주 정착과정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와 함께 과거의 계급관계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를 많이 들려주었다. 그는 마을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은이나 쌀 혹은 술 등으로 벌금을 내는 관습이 있었다고 했다. 혼인제도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는데, 귀족은 일부다처제가 가능하고 평민은 부인을 두 명까지 둘 수 있었다고 한다. 근친상간이나 강간에 대해서는 물소, 쌀이나 돈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이주와 정착의 역사를 통해 최초의 타이족 정착민들이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주의 여정에서 비엣족이나 므엥족 사람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 정착했을 때 선주민에 해당하는 다른 종족인 ‘싸’를 만났다. 더구나 초기 정착자들은 비엣족과 조공관계를 맺었다. 같은 하퐁 집안에 속하는 멘(Men)씨(1945년생)는 조상들이 정착한 이후 중국(청나라)에서 ‘황색 깃발을 든 군대들’이 침략하여 많은 주민들을 살해한 환란의 시기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이 시기 인근 마을 지도자들의 목이 잘려 막대기에 꽂힌 채 나무에 걸린 적도 있다고 했다. 베트남 응웬(Nguyen) 왕조의 왕이 군사를 보내 이 지방 출신의 한 전사와 함께 ‘황색기 군사’들과 싸워 무찌르도록 하였다. 이후 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사당이 세워졌다. 왕

은 그에게 득마이(Đức Mai)라는 이름과 함께 코끼리, 무기, 많은 화폐와 병사들을 하사했다고 한다. 그는 ‘파냐’의 신분을 얻었고 무양문(muang Mun), 무양목(muang Moc), 무양쿠옹(muang Khoong)과 무양쌈(muang Sam)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였다. 무양문은 이후 그의 이름을 따서 무양마이(muang Mai)가 되었고, 이곳이 현재의 마이쩌우에 해당한다. 무양목은 현재의 썬라의 목쩌우이고 무양쿠옹은 타인호아의 바트억이며, 무양쌈은 현재 라오스 땅에 해당한다. 오늘날 마이쩌우의 파이족은 이러한 지역에 친척들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형제들과 그의 무리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 정착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무양내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이 연결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이쩌우의 파이족은 이웃의 므엥족과 혼인동맹을 맺었다. 가족 구성원끼리는 혼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공 가문은 다른 파이 귀족 가문과 혼인을 통해 신분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러나 파이족 사이에 선택지가 없을 때는 므엥족의 지배층이나 귀족층에서 혼인교환 상대를 구했다.¹²⁾ 마이쩌우의 파이는 다른 종족과 토지를 둘러싼 경쟁과 전쟁, 혼인결연 외에도 교역관계도 맺었다. 찌엥사이는 아편 교역의 중심지였는데, 이 지방 파이족이 라오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노이, 중국, 태국 상인들과 거래했다. 파이족은 아편 구매뿐 아니라 재배와 판매도 했다. 따오는 권력을 가진 계급으로서 이 지역에서 아편거래를 통제하였고 그것을 통해 이익을 보고 나아가 그들의 패권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락 마을의 꾸인(Quynh, 1935년생)씨 가족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꾸인씨의 부친과 조부는 따오 계급에서도 높은 신분에 속하여 ‘텐’(than), 즉 ‘하늘’ 또는 ‘위대한 신’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들은 대규모 무양을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유했다. 꾸인씨와 유사한 연령대의 르우(Luu)씨는 빠이 계급에 속했는데, 그는 꾸인씨 가족에 대해

12) 파이와 유사하게 므엥족도 계급이 구분되어, 지배계급인 랑(lang)이 노동력과 자연 자원에 대한 지배적 권리를 지니고 있었다(Hoang Cam 2006, 182).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의 가족은 매우 부유했다. 인근에서 가장 부자였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텐’이었기 때문이다. 꾸인씨가 젊었을 때부터 서양식 옷을 입었다. 자가용도 있었다. 때때로 나에게 음식을 무료로 주었으나 돈을 주지는 않았다... 그의 가족은 노예가 많았다. 400명의 일꾼이 그의 논과 들에서 일했다. 매일 일꾼들을 차에 태우고 마이희의 넓은 논으로 데려가 일을 하게 했다. 그의 가족은 400마리가 넘는 물소를 소유했다. 주민들은 그의 가족을 하늘의 별처럼 보았다. 그런데 나에게 돈을 준 적은 없고 음식만 주었다.”

꾸인씨 가족은 마을 주변의 대부분 농지를 사들였다. 농민들은 무거운 토지임대료와 세금으로 인해 빈곤해져 토지를 따오 가족들에게 팔고 음식과 돈을 구해야 했고, 혹은 사병의 군사가 되어야 했다. 조사 당시 마을 원로 중 한 사람인 잔(Ran)씨(1925년생)는 노예계급 출신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노예계급의 처지와 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접할 수 있었다.

“나는 푸빈(Xā Pù Bin)에서 태어났다. 여기서 남쪽으로 1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높은 산 지역이다. 부모는 너무 가난하여 부자집에서 노역을 했다. 내가 태어나기 10년 전에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주인에게서 은화를 빌려 관습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얼마 후 어머니도 사망했다. 아버지만 남아서 빚을 갚아야 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당시 짜쟁사이의 군주였다. 그는 규모가 큰 아편 밀수업자였고 그의 거래처는 라오스 한 지방에서 고위관리이자 악명 높은 밀수업자였다. 아버지는 등골 빠지는 노역에도 불구하고 쌓인 이자도 갚지 못하고 빚만 늘어났다. 아버지 다음은 내 누이와 형이 노비가 될 차례가 되었다. 내가 15세가 되자 빚진 지 25년이 지났고 이번에는 내가 그의 노비 사병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푸빈을 떠나 이곳으로 왔다. 아버지가 빚을 지지 않았으면 나는 푸빈에 남았을 것이다. 5년 후 혁명이 되었다.

군주는 죽었고 우리는 빛에서 해방되었다.”

잔씨는 대부분의 주민들처럼 언제 락 마을을 비롯한 마이쩌우의 마을들이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 파이어로 락 마을 이름에 ‘이방의’ 혹은 ‘낯선’이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하는 주민도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파이족이지만 잔씨처럼 인근의 여러 다른 마을들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원주민이라고 하기 어렵다.

“정확하게 언제 마을이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내가 태어날 무렵 이곳에 두 개의 묘지가 있었다. 하나는 아이들 묘지이고 다른 하나는 어른들 묘지였는데 모두 꼭 차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마을에 오랫동안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했다.”(Ran씨)

타 지역의 상인들이 따오와 교역을 위해 당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찰엥사이로 왔다. 파이 평민들도 이웃의 흐몽(Hmông), 므엥, 자오(Dao), 라오 마을 등지로 장사를 하러 갔다. 특히 흐몽족 마을에는 아편을 구입하러 갔다.¹³⁾ 오늘날에도 노인들이 가끔 아편거래를 하러 다른 지역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주민이 있었지만 그것이 불법화된 것은 분명하다. 아편재배를 하는 가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내가 어렸을 때 흐몽 마을에 갔었다. 이를 정도 머물렀고 소금을 가져가 팔아 아편을 사서 므엥족에게 되팔았다. 과거에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한두 번 마약을 했었다. 매일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불법이다. 1960년 무렵부터 정부가 금지한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흐몽족도 더 이상 아편을 재배하지 않지만 라오스의 파이족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라오스까지 이를 반 걸어가서 불법적으로 마약을

13) 흐몽족뿐만 아니라 대다수 고산 소수종족의 생계에 양귀비 재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1990년대 이후 베트남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사기도 한다.”(Ran씨)

마이쩌우에는 여전히 아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무성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직접 목격할 수는 없었다. 곳곳의 현수막과 광고판에는 마약을 금지하자는 캠페인 문구가 여전히 많이 보인다. 찌엥사이 묘지의 통로에는 수많은 주사기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주민도 있었다. 주민들은 이웃의 다른 종족들과 곡식, 가축, 직물도 교역한다.

“여기에서 라오스까지 30-40킬로미터이다. 아버지(Luu씨)는 최근까지도 자주 라오 마을에 가서 장사를 하고 우리는 라오 친구들이 많다. 소금, 생선소스(느억맘), 건어물을 가져가 팔고 라오스 전통 직물을 사 온다. 라오 마을에서 특별한 종류의 직물을 생산하고 독특한 방식의 염색을 하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좋아한다. 아버지는 그것을 사와서 이곳 시장에서 판다.”(Binh씨, 1957년생)

“우리는 흐몽, 자오, 므엥족과 오랫동안 거래해 왔다. 과거에 우리는 곡물, 원자재, 소금, 건어물, 생선소스 등을 팔고 닭, 돼지, 물소, 황소 등을 사왔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물건을 팔러가지는 않지만 간혹 여전히 이러한 마을들에서 우리 마을로 찾아와 물건을 사려고 한다. 주로 의류나 직물을 가지고 와서 팔아 이익을 얻어 가거나 읍내 시장에서 직물을 사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판다.”(Ran씨)

마이쩌우의 파이족은 프랑스 식민지배자와도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식민시대 마이쩌우 출신으로 세 명의 파이족이 학교에 입학하여 프랑스어를 배우고 마이쩌우 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관리로 일했다. 이 세 명의 파이족 출신 관리 중에 두 명은 하퐁 가문출신이고 이중에 한 명은 전쟁기간 마이쩌우의 프랑스 군사기지가 된 마이하(Xã Mai Hả)에 살았다. 그는 프랑스 군대에 입대하였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

랑스군을 따라 사이공으로 갔다. 미국과의 전쟁이 종료된 후 그는 마이찌우로 돌아왔다. 최근에 그는 마이찌우 시장에서 바나나 장사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어 실력을 활용하여 외국인에게 과일을 판매한다고 했다. 세 번째 관리는 라이찌우(Lai Châu)성 출신이다. 나머지 한 명은 까오방(Cao Bằng)성으로 이주하여 일하였다.¹⁴⁾ 호아빙시에 사는 프랑스인 의사들이 종종 마이찌우에 방문하여 천연두를 치료했다. 프랑스 관리들이 찌엥사이에 와서 아편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체포했지만 그들도 아편을 사고팔았다고 한다.

마이찌우의 파이족은 1940년대 후반 프랑스와 베트남 군대가 마이찌우 계곡에서 전쟁을 시작했을 때 프랑스인과 비엣족이 나타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 그리고 1950년에 마이찌우에서 프랑스인들은 쫓겨났다. 마이찌우 파이족은 과거 득마이가 했었던 것처럼 중국 황제의 군대에 항거하는 비엣족 군사들과 함께 싸우지는 않았지만, 프랑스 식민군대에 저항하는 비엣 군인들과도 맞서 싸우게 되었다.¹⁵⁾

IV. 탈식민·사회주의 혁명과 전쟁기의 파이족 마을의 지속과 변화

1945년 8월 혁명으로 프랑스의 행정지배권이 마르크스주의자가 지도하는 비엣밍(Việt Minh) 조직으로 넘어가고, 이후 ‘민주주의혁명’이 이어졌다. 독립전쟁이 격화되었고 1946년 북부에서 호치민이 봉건체

14) 이 사람은 카인(Khanh)씨 할아버지 형제 중 한 사람이었다. 그도 프랑스 군대를 따라갔으나 남부에서 사망했다.

15) 비엣족과 프랑스인 모두에게 소수종족과의 관계, 특히 파이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다(McElwee 2004). 프랑스가 고산 파이족과 저지대 비엣 간의 갈등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반면에 비엣밍은 파이족 내부의 갈등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후자의 경우가 바로 마이찌우의 사례였다.

제의 소멸을 선언하고 베트남민주주의공화국(DRV)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타이-메오 자치구’(Thai-Meo Autonomous Zone)가 설립되고, 이는 곧 ‘서북자치구’(Tay Bac Autonomous Zone)로 개명했다(McElwee 2004, 191). 그러나 이 자치구에는 마이쩌우의 타이족을 비롯한 호아빙성의 여러 소수종족들은 포함되지 않았다.¹⁶⁾ 대신에 무양체계의 행정구조가 해체되고 비엣족이 주도하는 행정개편에 따라 ‘싸’(Xã, commune)라는 행정단위로 재편되었다. 싸는 지방의 기초행정단위로서 공산당과 인민위원회라는 정치 및 행정기관과 함께 여러 대중조직이 포함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주민은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또는 농민회 중 하나 이상 조직의 회원이 되었다. 이후 마이쩌우는 여러 지방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었다가 확장되거나 재조정되는 과정을 겪었다. 1945년에는 마이쩌우가 마이트엉(Mai Thượng)싸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이후에는 다박(Đà Bắc)과 함께 마이다(Mai Đà)싸로 편입되었다. 1957년에 비로소 마이쩌우싸가 되었다.

DRV 정부는 타이의 사회정치구조를 ‘봉건적’이라고 규정하고 지배계급이던 따오를 ‘사악한 지주’로 간주하여 귀족의 신분과 함께 지주로서 권력을 박탈하고 일부를 투옥시켰다. 투옥을 면한 사람들도 토지물수뿐 아니라 재산을 빼앗기거나 기부해야 했다. 꾸인씨의 가족은 금과 은을 민주혁명 세력에 기부하여 투옥을 모면했다고 한다. 그러나 찌엥쩌우의 씨안(Xian, 1932년)씨의 경우 아버지가 귀족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했다. 씨엔씨는 가족의 신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아버지는 파냐였고 나 문(na Mun)이라고 불렸던 가장 큰 농지를 포함하고 있던 찌엥쩌우, 마이희, 락 마을 전체를 통치했다. 그는 지금보다 훨씬 큰 집을 소유했었다. 본가 주변의 작은 집들에 노예들이 거

16) 이 자치구는 오늘날 엔바이, 썬라, 디엔비엔, 라이쩌우성이 포함된다(McElwee 2004).

주하였고 전체를 대나무 울타리로 에워싸서 호랑이의 공격을 막았다. 우리 가족은 일꾼도 많이 고용했다. 일부는 이 지역 주변에서 왔고, 어떤 이들은 집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먹고 잤다. 그 집에 동시에 50~60명이 함께 지낸 적도 있다. 그들은 열을 지어 매트리스에서 잠을 잤다.”

60년 동안 귀족 신분이던 씨안씨 아버지는 8월 혁명 기간에 자신의 권력을 새 정부에 이양했다. 그는 1971년 7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프랑스 식민군대가 완전히 물러난 이후에도 사회주의 혁명은 지속되었다. 1963년 씨안씨는 감옥(재교육캠프)에 갔다.

“나는 감옥에 6년 2개월 반 동안 지내고 1969년 석방되었다. 정부 정책이 지주를 감옥에 보내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들에 나가 일하며 정부 정책을 배웠다.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일을 해야 했다. 감옥은 하장(Hà Giang)성에 있었는데 미국과 전쟁 기간 유폐였다. 그 감옥에 2500명 정도가 있었다. 이 중에는 ‘쓰어이’(비엠틈족)도 많았다. 여러 지방 출신이 모여 있었는데 므엥, 만(Mán, 또는 자오), 메오(Mèo, 또는 호몽)도 있었다. 1년에 세 벌의 옷만 지급받았다. 병크에서 자고 배급식량을 먹었다. 한 쟁반에 여섯 명이 같이 먹었는데, 개인적으로 음식을 받는 경우는 없어서 음식이 더러웠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지만 모두 같이 고생하며 먹고 잤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

아편 판매를 한 사람들 중 일부는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다. 카인(Khanh)씨는 만일 8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마이쩌우에 부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노예계급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잔(Ran)씨 가족은 지주가 사망하자 빛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혁명으로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다. 잔씨는 1945년 마이트영씨의 공안 간부가 되었으나 2년 후 전쟁이 발발하면서 단명으로 끝났다. 다시

들어온 프랑스 군사들이 잔씨 같은 사람들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했다. 그 후 그는 입대하여 마이찌우에 배치되어 있던 1947~49년 동안 많은 시간을 라오스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 때 한 가족이 마이찌우에 와서 아편을 팔았다고 했다. 잔씨는 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전쟁기간 나는 매달 라오스에 가서 체류했다. 한 가족이 나에게 음식을 주고 같이 지내게 했다. 마이찌우에서 근무할 때 프랑스군이 나를 체포했다. 내가 공안이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밧줄로 묶어두고 음식도 주지 않았다.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소 한 마리를 주고 빠져나와 라오스로 도망쳤다. 그때부터 나는 라오스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나를 아들로 입양하고 아내를 구해준다고 했지만 내가 거절했다. 당시 나는 가난하지만 젊었고 내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항상 마이찌우를 그리워했다. 라오스의 가족은 내 가족보다 부자였다. 라오스의 부부는 불행히 자식이 없었다. 마이찌우가 해방된 후 나는 돌아왔다. 몸이 건강하면 그곳으로 다시 방문하고 싶다.”

이와 같이 당시 마이찌우는 불안정한 시기였다. 1947년부터 프랑스와 베트남 군대의 전쟁터가 되었으나 타이족 주민들은 탈출하지 못했다. 여러 마을에서 집들이 파괴되었다. 프랑스군이 꾸인씨의 집도 공격하여 점거했다, 프랑스 사람과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베트남 군대가 집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그 동안 프랑스군대가 태운 집들도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주민은 집에 머물러 있고자 버텼기 때문에 프랑스군대가 집으로 들어와 살거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짜양사이 거주자들은 주변 지역의 많은 주민들처럼 피난처를 찾아 산으로 동굴로 숲으로 들어갔다. 일부는 농사를 짓던 외딴 마을의 논으로 이동했다. 정부가 사람들을 짜양사이로 다시 불러 모았을 때 두 세 가족이 그들의 논 옆에 남는 것으로 결정하여 지금의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었다. 락 마을 주민들도 전쟁기간 근처의 산으로 이동했고 이것

이 현재 이 마을이 두 부분으로 나뉜 이유이다.

일부 파이족은 전쟁기에 프랑스를 위해 일해야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 주민이 설명해주었다.

“누가 프랑스를 위해 일하느냐는 얼마나 많은 논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 논이 많은 가족은 가족 중 한명이 프랑스 군대를 따라가야 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해야 했다. 만일 프랑스를 따라가지 않으면, 프랑스군이 논을 빼앗았다. 논이 적은 가족은 따라갈 필요가 없었다. 가난하고 프랑스 군대를 따라갈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족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Luu 씨)

이는 대개의 경우 따오 계급의 구성원이 프랑스군을 위해 일했다는 의미이다. 프랑스군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은 전투나 노역에도 참여했지만 대포나 무기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일도 해야 했다. 프랑스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급료도 음식도 받지 못한 채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산과 숲에 피해 살면서 주민들은 마이하의 프랑스 군사기지지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마이하는 당시 프랑스군이 토지를 정비하여 활주로를 건설한 곳이었다. 일부 프랑스 군인들도 산 근처에 머물렀고 때로는 프랑스 공군비행사가 낙하산으로 프랑스 병사들에게 식량을 떨어뜨리는 것도 보았다. 루언(Luan, 1938년생)씨가 당시를 회상했다.

“우리는 물론 그 음식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가질 수가 없었다. 내 부모와 많은 노인들이 낙하된 식량을 프랑스 병사들에게 운반해주어야 했다. 대개 숲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병사들이 회수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떤 주민은 그것을 땅이나 무덤에 감추기도 했지만 프랑스 병사들이 아이들을 납치하여 부모가 식량을 돌려주고 프랑스 병사를 위해 일을

해야 했다... 전쟁기에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 군대에 참여해야 했고 라오스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열 살이던 1948년 즈음에 친구와 함께 프랑스 부대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라오스 병사들을 만나 이야기 하였다.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프랑스 군대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학교에 가기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루언씨는 당시 비엡족 군인들을 위해 몰래 정보를 알려주는 일을 했었다고 했다.

“전쟁 당시 이동식 학교가 있었다. 때때로 나는 밤에 학교에 갔다. 내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될 때 다른 곳으로 프랑스 군인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교실은 숲 속에 있었다. 우리는 지붕을 앞으로 덮어 위장을 해야 했다. 우리는 각각 책이 한권씩밖에 없었다. 하띠이와 하노이에서 온 네 명의 교사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저지대에서 온 쩡족인 ‘쓰어이’였다. 전쟁 때 가르친다는 것은 위험한 직업이었다... 전쟁이 계속되고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정보를 전달했다. 우리는 하노이에서 온 정보를 마이쩌우 우체국에서부터 여러 다른 현으로 보냈다.”

1950년 2월 대량 폭격 이후 프랑스군은 마이쩌우 일대를 떠났다. 1954년이 되어 전쟁이 더욱 격해지며 고산 소수종족을 비롯한 모든 남자는 베트남군에 입대하여 디엔비엔(Điện Biên)의 북쪽 끝 전투지역까지 가야했다. 그러나 16세가 된 루언씨는 당시 몸이 튼튼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다시 전령임무를 맡았다. 혁명운동이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을 때 그는 정보를 이 지역의 여러 그룹에게 퍼뜨려야 했다. 그는 쌀을 디엔비엔의 군사들에게 운송하는 것도 도왔다.¹⁷⁾ 그는 먹을 쌀도 많

17) 디엔비엔 전투에서 사용된 물자의 많은 부분이 비엡팅 주력부대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운반책으로 일했던 약 8만 명의 소수종족에 의해 산악지역을 지나 운송되

이 없었다고 했다.

“모든 인민이 세금을 내고 군인들에게 식량을 사주어야 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었다. 세금은 쌀 생산량에 달려 있었지만 군인들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 인민들이 보유한 쌀을 싼 가격으로 정부에 팔도록 했다.”

그 유명한 디엔비엔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패퇴했을 때 루언씨는 몸에 문신을 새겨 그날을 기념했다며 팔의 문신을 보여주었다. 1955-56년 루언씨는 청년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전쟁 기간 모든 건강한 인민은 나라를 위해 일해야 했다. 나는 청년 조직에 소속되어 도로 건설에 참여했다. 도로가 너무 좁았기 때문이다. 호아빈에서 디엔비엔까지 대포와 포탄을 운반할 도로를 만들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여전히 무기를 디엔비엔까지 운반해야 했다. 가는 길이 험하고 무서웠지만, (웃으면서) 지치면 노래를 불렀다. 모두 젊었기 때문이다. 내 가족에 세 명뿐이었지만 나는 이 조직에 참여하고 싶었다. 부모가 화를 많이 내고 많이 울었지만 나는 참여하고 싶었다.”

디엔비엔 전투에서 살아남은 프랑스 군인들은 마이쩌우를 지나 남부로 도망갔다. 한 주민이 어린 소년일 때 눈에서 처음으로 체구가 ‘엄청 큰’ 프랑스 병사를 보고 두렵고 신기했던 일을 이야기했다.

“1954년 내가 8세 때, 프랑스와 베트남의 전쟁은 큰 재앙이었다. 디엔비엔에서 패퇴한 프랑스군 일부가 이 마을에 다시 왔다. 나는 인생 처음으로 외국인을 보았다. 아주 더운 5월에 이곳에 머물렀다가 타인호아로 갔다. 병사들은 배낭을 메고 걸었다. 그들은 들에서 잤다. 2-3천명이 나 되는 병사들이! 심지어 모지에서도 잤다. 나는 참으로 신기했고 또

었다(Allan 2011, 92).

두려웠다. 이 군인들은 베트남 군인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낯설게 보였다. 잠을 못자는 프랑스군인도 있었다.”(Mu씨)

이와 같이 마이쩌우의 타이족은 탈식민 전쟁과 혁명의 시기에도 식민군대나 비엠큐와 같은 거대한 외부의 힘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종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V. ‘쓰어이’의 이주, 사회주의 개혁과 종족 계급 관계의 변화

1950년대부터 저지대 주류 종족 사람들, 즉 ‘쓰어이’가 마이쩌우로 이주한 과정에 관한 지방사에는 소수종족들의 격동과 역경의 삶이 계속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1969년부터 75년까지 대미항전기에 그러한 역경이 극에 달하였다. 1945년 이전에도 쓰어이 상인들이 일부 마이쩌우에 살았었다. DRV의 이주정책으로 인해 이후 마이쩌우에 거주하는 쓰어이 인구는 늘어났다. 비엠큐 이주자들이 고산지대에 정착하게 한 이러한 정책은 새로운 경제정책과 함께 시행되었다(McElwee 2004, 201-203).

1950년대부터 베트남 정부는 고산지역 오지를 위한 ‘새 경제 정책’을 시작했다. 중앙정치국의 결의에 따르면 새 경제 정책은 ‘고산지역을 자급자족경제에서 복합적인 상품경제로 전환시키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여 국가 전체의 사회주의적 산업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고산지역의 이동경작이나 화전농을 금지하기 위한 강제이주 정책이 잘 보여준다(최호림 2012, 544-45). 이는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여 고산지역을 현대화하려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이주한 저지대 출신 주민들과 함께 고산 소수종족들이 마을에 정착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함께 사는 ‘모범마을’을 창조하고자 했다.

1954-75년 기간에 백만 명 이상의 저지대와 델타지역 주민들을 고산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실제, 1960~74년 기간에 384,000 명의 쩡족이 성공적으로 북부 산간지역으로 이주했고 1975-79년 동안 이 지역에 정착한 쩡족은 28만 명에 달했다(Khong Dien 2002, 82). 잔(Ran)씨는 1964년 이전에 마이쩌우 인구 중 타이족이 90%였지만 지금은 8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이쩌우에 거주하는 쩡족의 다수는 국도의 갈림길에 지나가는 중심지인 마이쩌우티편에 거주한다. 이곳이 마이쩌우현의 행정 및 상업의 중심지이고 사회적 허브에 해당한다.

마이쩌우의 쩡족 이주민의 대다수는 남딘(Nam Định)성 쉰원쯔엉(Xuân Trường)현에서 왔다고 했고, 일부 관리나 군인들이 파견되고 농민이 많았다. 이들은 이주하여 농업협작사를 조직하고 농업 집단화를 추진했다. 이로써 농가는 토지, 축사와 노동력을 공동출자하여 함께 일하며 곡식과 가축을 기르게 하였다. 마이쩌우의 모든 논과 개별 가구 소유했던 물소, 소, 농기구 같은 많은 자산들이 집단화되어, ‘생산수단’이라는 이름으로 협작사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자산이 되었다.

사회주의 개혁으로 과거 귀족계급에 속했던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루언씨는 꾸인씨 가족이 소유했던 400킬로그램의 은화를 정부가 몰수했다고 했다. 대신에 꾸인씨 가족은 투옥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그의 토지도 몰수하여 재분배했다. 십여 년 전에 정부가 꾸인씨 가족에서 7천만 동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루언씨는 당시 꾸인씨 가족의 재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했다. 락마을의 히엡(Hiep, 1941년생)씨는 자신의 가족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가족 소유의 토지가 있었고 처음 마을에 온 사람들도 많은 땅을 소유했다. 정부가 협작사를 만들고 토지개혁을 시작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의 가족도 이전에 많았던 땅을 잃게 되어 생활이 엄청 힘들어졌다. 정부는 가족도 몰수하여 합작사로 가져갔다.”

토지를 재분배 받은 대부분 사람들의 경험은 이와 정반대였다. 루언씨는 자기 가족처럼 빈곤한 주민은 토지와 많은 돈을 받았고 꾸인씨의 물소도 분배받았다고 했다. 1956년 락 마을의 개혁 기간에 많은 가구들이 각각 반 헥타 면적의 논을 할당받아 6백 봉지의 벼씨를 심을 만큼 충분한 땅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과거에 평민이었던 주민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고 저지대 이주민들과 함께 정부를 위해 일하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잔씨는 공안에서 일하면서 전쟁 동안 많은 시간을 라오스에서 보냈다. 프랑스군이 철수한 후 그가 25세였을 때 마을에 돌아와 2년 동안 ‘민주주의 개혁’을 수행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1954년부터 현 인민위원회 통계국의 간부가 되었다. 그는 매달 공안에게 통계보고를 위한 서류파일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것에는 인구, 가구 수, 성별 연령별 상세한 가구구성뿐 아니라 닭, 돼지와 같은 가축의 수도 기입되었다. 마을을 방문한 외부인의 숫자도 기입해야 했다. 그는 70세가 넘는 1997년까지 43년 간 통계국에서 일을 계속했다. 그는 또한 1959년에 마이쩌우 합작사의 회계가 되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그의 집에 관광객이나 외부 손님을 받았다. 그는 마이쩌우의 마을들에서 ‘사회주의 관광’이 시작되는 일에 참여한 인물이다(최호림 2017, 284-290 참조). 그는 1964-85년 기간 합작사의 부주석이었고 오랫동안 마을 지도자역할을 했다. 1988년부터 관광업에 집중하면서 재산을 모았다.

저지대로부터 이주민들이 들어와 1959년 마이쩌우에 보건소가 생기고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살충제 뿌리기를 비롯한 보건위생사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정부는 마이쩌우티쩨에 행정관청, 병원, 국영상점 등을

열었다. 대중교통도 시작되었다. 매일 마이찌우와 호아빈시 사이에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트럭이 다녔지만, 당시에는 한 대 뿐이어서 사람들은 표를 구하기 어려웠고 일부는 여전히 걸어 다녀야 했다.

전쟁 전에는 오직 하퐁 집안의 성원들만 호아빈시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전쟁 기간에 저지대로부터 비열족 교사들이 와서 숲 속에서 평민들을 위한 학급을 운영하고자 했다. 1958년 정부는 교사들을 고산지역에 파견하여 가르치도록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계속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개혁에 대해서도 배웠다. 프랑스 편에서 싸웠던 귀족 가족의 자녀들은 학교에 입학에 허용되지 않았다. 귀족 가족 출신이었던 텀(Tam, 1954년생)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버지가. 프랑스군과 함께 싸웠다고 해서 우리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 디엔비엔 전투가 끝난 후 정부는 상층계급을 공격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토지가 많다고 아버지를 지주계급이라고 불렀고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 돌려주라고 요구했다. 이후 사람들은 지주들을 혐오했고 자녀들이 시험에 합격해도 대학에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군대에 입대하고 싶어도 정부는 그들이 남쪽으로 갈 것이라며 입대를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남부는 미군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1978년쯤 마이찌우인민위원회가 내 동생을 군대로 보내기 위해 지주의 명칭을 ‘부농’으로 바꾸어주었다. 동생은 제대한 후 마이찌우 무역회사에 취업했고, 회사에서 그를 하노이 대학에 보내주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마이찌우현의 무역부에서 일하고 있다. 오늘날 정부 교육프로그램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계속 학업이 우수하면 (소수종족은) 시험을 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다. 1998년 내 조카(동생의 딸)도 그렇게 입학했다. 이전과 달리 이제는 누구나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조카는 하노이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역사학과를 다녔다.”(Tam씨, 1954년생)

그러나 이것은 귀족 계급에 속하여 처벌을 받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국가의 공무직을 담당할 수도 있었던 주민의 사례이다. 꾸인씨도 마이썸 현의 회계가 되었고, 씨안(Xian)씨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 정부를 위해 일하다가 마이썸 인민위원회의 부주석 지위까지 올랐다. 조사 당시 그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의 땅에는 타이족 초기 정착 시기의 대토지인 ‘나문’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그의 아버지가 ‘파냐’였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드물게 큰 집에 살고 있다. 과거 귀족이나 지주 출신도 전략적으로 새로운 사회주의 정부에 협조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가난한 주민들은 과거 타이족의 사회정치적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회주의 혁명에 이어 시장경제 도입으로 과거 귀족 출신이 다시 부자가 되거나 지배관료가 되었다는 것이다. 노인들 중에는 하퐁 출신의 가족이 오늘날에도 귀족 계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식인은 대개 하퐁 집안에서 나왔다. 오직 하퐁 가족만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귀족이 10명의 평민과 같다는 얘기가 있다. 오늘날 하퐁 가족은 다른 사람들과 여전히 차이가 있다. 행동이나 말과 태도가 다르다. 대부분이 그렇다. 대학에서 공부도 잘한다. 나는 하퐁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0살 때부터 공부했다. 오늘날에도 하퐁 사람은 지식이 많다. 마을 지도자는 마을에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퐁 출신이 아닌 다른 가족 출신 지도자가 있는 마을은 아마도 하퐁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Khanh씨)

전쟁과 사회주의 개혁을 겪으면서 계급이나 신분은 상관없이 소수 종족 대부분은 매우 어려운 삶을 겪어왔다. 농업 합작사 정책으로 모든 생산물은 국영공사에 팔아야 했다. 주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동일 하루당 800그램의 쌀만 배급받을 수 있었다. 가구별 노동력 수에 따라 할당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조금 밖에 받을 수가 없었다.

1972년에는 해충이 퍼지면서 심한 흉작으로 식량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주민들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 주변에 카사바나 옥수수를 키웠다. 닌(Ninh, 1962년생)씨는 비탈진 산을 경작하는 것이 논일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산지에서는 토지를 보유하고 생산과 분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벼를 경작하는 것보다 나았다고 했다.

“내 가족은 원래 농민이어서 토지를 할당받았기 때문에 가계가 튼튼했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논에서 벼를 경작하고 산에서 옥수수를 키웠다. 산에서 딸감나무를 모아 시장에 나가 팔았다. 아침에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밤늦게까지 산에서 일했다. 어려운 시기였다. 논은 합작사에 속해 있어서 아무도 돌보지 않아 쌀이 적게 생산되었다. 그러나 산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 옥수수를 재배하면 우리 소유이고 먹고 팔 수 있었다. 1980년 결혼할 무렵에도 어려운 때가 계속되었다. 특히 둘째 딸이 1985년에 태어나 세 달이 되었을 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집에서 할머니가 딸을 돌보았는데 우유를 먹을 수 없어 죽을 먹어야 했다. 여전히 기억이 생생하다.”

프랑스군대가 물러난 이후 마이쩌우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미국과의 전쟁에 영향을 받았다. 락 마을에서 건장한 남자들은 입대하여 전쟁터로 다시 가야 했다. 북부베트남 고산 지역은 폭격을 피했지만 라오스 북부 산지에는 폭격이 지속되었다. 농업 집단화로 인해 어려웠을 때에 전쟁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황폐해졌다. 많은 주민들이 당시의 곤경에 대해 유사한 이야기를 했다.

“가난했다. 프랑스와 미국 전쟁기간 더 했다. 프랑스 전쟁 때는 어려서 알지 못했던 사람도 미국전쟁 때는 힘든 것을 분명히 안다. 미국전쟁 때에 마을 사람들은 군인들에게 25톤의 쌀을 기부해야 했다. 주민들은 항상 배가 고팠다. 전쟁 동안 모든 가구가 쌀을 내야 했다. 가족을 키우면 그것을 합작사나 국영상점에 팔아야 했다. 돼지를 잡으려고 해도 인

민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마을의 건장한 남자는 군대에 가야 했다. 당시 부모가 병중이고,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 사람도 가야했다. 남편이 입대하여 혼자서 어린 아이를 키워야 하는 젊은 부인들이 모여 많이 울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처참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온다.”(Mu씨)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나 다른 지역의 타이족 뿐만 아니라 흐몽, 자오, 므엥족 등 다른 종족과 장사를 했다. 다른 마을에 가서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는 주민도 늘었다. 다른 마을에서도 쌀농사뿐 아니라 산비탈 황무지를 갈고 옥수수 심는 일을 하기도 했다. 중년층 주민들의 이야기도 대부분 노인들 이야기와 유사했다. 일부 주민은 1978-82년 중국과의 국경전쟁에도 참여했다. 중국과 전쟁이 끝난 후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950년대 중반, 합작사 설립과 함께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과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의 “새로운 생활” 건설 운동이 시작되었다(최호림 2007, 65-69). 이 캠페인이 즉각적으로 고산 소수종족의 종교와 생활관습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구래의 악습을 폐지’하고 ‘낙후된 미신과 비과학적 사고방식과 관행을 철폐’해야 했다.

타이족의 신앙체계는 보편적으로 조상숭배와 애니미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피’(phi)라고 부르는 정령을 믿었다. 타이족은 다양한 ‘피’의 세계가 살아 있는 사람의 세계의 복사판으로 간주하고, 정령의 세계가 자신의 환경에 강하게 개입하고 영향을 주는 것으로 믿었다. 화려하고 낭비적인 장례식, 인간 영혼의식, 무앙의 수호신 의식, 마을의 정령의식, 물의 신 숭배의식 등이 ‘미신’이라는 낙인이 부여되어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나아가 무당이나 점쟁이를 비롯한 종교적 사제들을 ‘악한 인간’으로 간주하고 인민위원회와 당 지부의 ‘문화간부’가 이들을 통제했다. 마을 사당과 영혼의 집과 같은 성소들은 파괴되었다.

“이곳 파이족은 오직 주상가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의례개혁으로) 처음 마이쩌우에 정착한 파이족의 신앙을 위한 정령의 집이 사라졌다. 숲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요즘 마이쩌우를 방문하면 파이족이 최근에 이주한 새로운 종족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부에게 정령의 집을 다시 짓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거에는 많은 정령사당이 있었고, 이 중에 두 곳은 파이족의 수호신을 모시는 중요한 사당이였다. 이 사당들은 프랑스, 미국과의 전쟁 기간에 파괴되었고 토지개혁 기간에도 파괴되었다. 정부가 지주 가족을 공격하면서, 파이족의 관습이 미신적이라고 하며 정령의 집을 파괴하는 정책을 집행했다. 의례개혁은 전국에서 진행되어 깡족의 사당도 파괴했다. 정부는 민간의 성소를 비료 창고나 간부들의 사무실 혹은 군부대로 바꾸었다. 마을 영혼의 집은 주민들에게는 매우 신성한 공간이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도둑맞으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여 잃어버린 물건과 도둑을 미치게 하는 기도와 주술을 하였다. 그러나 토지개혁기간에 각 싸에서 한 명의 무당만 허용하고 모든 종교의례와 사당을 인민위원회의 통제 하에 두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영매가 되고 싶으면 배울 수 있게 되었으나 이 지역에는 소수의 무당만 있다.”(Khanh씨)

별 저항 없이 의례개혁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주민도 있다. 식민시대 노예계급출신의 잔(Ran)씨가 그 중 한 명이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복잡한 일을 겪거나 다치면 신을 불러 도와달라고 했다. 1930년대 우리 주상가옥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작은 귀신 사당이 있었다. 그 집에서 토지신, 하늘신, 마을신 숭배의례를 하고 기도했다. 오직 무당만이 신의 도움을 알 수 있고 그들 불러낼 수 있었다. 1950년대 중반 무렵 정부가 나쁜 관습이라며 이것을 파괴했는데 주민들은 불만 없이 따랐다. 정부가 병원을 짓고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했다.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도움을 얻기 때문에.”

반면에, 농민 출신인 르우(Luu)씨는 파이족의 관습은 ‘미신’일 뿐 아

나라 ‘낭비적’이라고 정부가 금지했으나, 사실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일부 관습은 조금만 변했다. 가령, 장례식은 과거에 매우 성대했고 따르고 지켜야할 의식절차가 많았다. 1960년대 이후 변화하여 간소화되었다. 이전에는 망자가 조상에게 가도록 하는 의식을 엄격하게 치르고 하늘로 가도록 하는 의식도 엄격하게 치러야 했다. 이를 위해 많은 돼지를 잡았으나 사람들은 망자가 반드시 가야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여 좋게 여겼다. 그러나 정부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며 간소화하고 절약하도록 했다. 1960년대에는 이런 규제가 달갑지 않았으나 오랫동안 (장례식 간소화 때문에) 아무런 나쁜 일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례 개혁에 따르고 지금은 좋다고 생각한다.”

개혁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따르게 되었다는 주민도 있고, 의례개혁에 저항했다는 주민도 있었다. 오늘날 마이쩌우 마을 어디에서나 가정마다 조상숭배의례를 수행하고 집 중간 방에 조상제단을 두고 있고, 주상가옥의 2층 집을 들어서면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조상의 영정을 두고 거의 매일 향을 피우고 제례를 올린다. 특히 음력 설 뗏(Tét)이나 벼 수확 축제일, 조상의 기일,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는 엄격하게 지키는 편이다. 대부분 사업의 성공과 건강,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며 조상에게 가족의 희노애락을 보고하는 의식을 치른다. 많은 주민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에 대해 웃으며 대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의례 관습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병이 나면 우선 돈을 들여 병원에 가고 약으로 치료를 하지만 회복되지 않으면 무당을 찾는다. 혼인과 장례식과 같은 통과의례는 여전히 간소하게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거의 관습을 따르는 주민들이 많다. 조사 당시 락 마을 촌장이던 히엔(Hien, 1948년생)씨의 이야기처럼 파이족은 여전히 자신의 고유한 관습을 따르고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람

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는 (정부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파이족의 관습을 따른다.”

VI. 맺음말

1940년대 이후 마이쩌우 파이족은 격동의 세월을 겪었다. 1940년대에는 민주공화국 혁명과 프랑스 전쟁을 겪었다. 1950년대부터 사회주의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저지대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집단화와 의례개혁에서 도이머이(đôi mới, 쇄신)정책까지를 겪었다. 이 논문은 마이쩌우의 파이족이 이러한 과정에서 베트남 국민국가의 한 부분이 되어 가면서, 국민국가 내의 소수종족으로서 고정되거나 혹은 스스로 규정되어 왔다는 점을 지방사의 관점에서 탐구한 결과이다. 마이쩌우의 파이족은 종족분류체계뿐만 아니라 반복된 전쟁에 동원되면서, 그리고 집단화의 의례개혁 과정을 통해 국민적 소수종족으로 고정되어 왔다. 그러나 또한 그들 스스로도 종족적 지위를 구성하고 격변의 역사적 과정에서 마이쩌우의 파이족으로서 규정해 왔다. 그들은 스스로 이주하여 마이쩌우 계곡 마을에 정착하였고, 베트남 정부가 와서 통치하기 전까지 정착농경을 통해 벼농사를 지었다. 또한 파이족 사회는 계급이 구분된 위계사회였으며, 민주주의의 비전을 지닌 베트남 국가가 건설된 후 평민들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부여하자 받아들였다. 반면에 귀족층 출신도 국가 영역의 임무에 참여하였다.

전쟁, 굶주림, 집단화 등 50여년의 변화를 겪은 후 주민들은 탈집단화 정책을 환영하고 다시 한 번 가계경제를 활성화시킬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관광산업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1990년대 마이쩌우

의 마을들이 ‘문화관광마을’로 공식 지정된 것을 받아들였다. 최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관광산업을 매우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 관광은 또한 지방 소수종족 주민들이 지속적인 협상의 과정을 통해 복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구성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필자는 문화관광마을의 지정과 관광업 발전 이후에도 국가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이 지방의 파이족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하나의 특징적인 정체성을 지닌 소수종족으로 규정해 갈 것으로 예상한다.

결론적으로 마이쩌우의 파이족은 국가의 종족분류체계나 외부 관광객의 시선에 따라 고유한 전통문화를 가진 ‘국민적 소수종족’으로 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독특한 종족으로 규정해 왔다. 파이족은 국가가 정한 종족분류체계에 속하는 하나의 소수종족으로서 국민국가의 영향 안에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파이족 스스로도 분명히 구별되는 독립된 종족으로 살고 있다. 파이족의 일상생활에서 파이족의 능동적인 역할, 즉 ‘파이 에이전시’(Táy agency)는 작동하고 있다. 종족 내부에 계급적인 분화와 불평등도 존재하고 파이족 자신들만의 어젠다가 있다. 마이쩌우의 파이족 마을들이 종족문화 관광촌으로 개발된 이후의 종족정체성의 변화와 지속의 구체적인 면모에 관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투 고 일: 2017년 06월 30일

심사완료일: 2017년 08월 03일

게재확정일: 2017년 08월 03일

참고문헌

- 최호림. 2007. “베트남의 문화정책 담론: 전통의례와 ‘민족화’”, 『아세아 연구』 50(3): 64-92.
- _____. 2012. “베트남의 소수종족과 국가: 종족분류체계 및 종족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527-67.
- _____. 2017. “베트남의 관광개발과 고산 소수종족 관광 이미지: 역사적, 비판적 접근”, 『민주주의와 인권』 17(2): 273-309.
- Allan, Malita. 2011. *Living in a Tourism Village: Strategies, Negotiations and Transformations among Upland Tai in Northern Vietnam*. PhD dissertation, La Trobe University, Australia.
- Cam Trong. 1999. “Thai Studies in Vietnam and their Problems,” *Vietnamese Studies, Special Issue: Thai Studies*, 4: 5-13.
- Condominas, G. 1990. *From Lawa to Mon, from Saa'to Thai: Historical and Anthropological Aspects of Southeast Asian Social Spaces*,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 Dang Nghiem Van. 1988. "Lai lịch người Thái và người Thái đất Mai Châu (타이족의 기원과 마이쩌우 타이족)," in Nguyen Huu Thuc & Ha Sum eds. *Tim Hiểu Văn Hóa Cổ Truyền Của Người Thái Mai Châu (마이쩌우 타이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Ha Son Binh: Uy Ban Nhan Dan Huyen Mai Chau & So Van Hoa Thong Tin Ha Son Binh. pp.26-43.
- Dang Nghiem Van, Chu Thai Son & Luu Hung. 2010. *Ethnic Minorities in Vietnam*, Hanoi: The Gioi Publishers.
- Hoang Cam. 2001. "Thái Ritual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Social Sciences* 1: 82-95.
- _____. 2006. "Evolutionary Theory of Cultural Differences and Upland

- Development Practices in Vietnam before Doi Moi," *Approaching Vietnam's Contemporary Cultures: Methodology and New Studies*, Hanoi: Vietnam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pp.177-200.
- Keyes, C. 1977. *The Golden Peninsula. Culture and Adaptation in Mainland Southeast Asia*, New York: Macmillan.
- Khong Dien. 2002. *Population and Ethno-Demography in Vietnam*, Silkworm Books, Chiang Mai.
- McElwee, Pamela. 2004. "Becoming Socialist or Becoming Kinh? Government Policies for Ethnic Minorities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 C. R. Duncan ed. *Civilizing the Margins: Southeast Asian Government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Minorities*, Singapore: NUS Press, pp.182-213.
- Nguyen Huu Thuc & Ha Sum eds. 1988. *Tìm Hiểu Văn Hóa Cổ Truyền Của Người Thái Mai Châu* (마이쩌우 타이족 전통문화의 이해), Ha Son Binh.: Uy Ban Nhan Dan Huyen Mai Chau & So Van Hoa Thong Tin Ha Son Binh.
- Nguyen Van Thang. 2007. *Ambiguity in Identity. The Mieu in North Vietnam*, Silkworm Books, Chiang Mai.
- Taylor, Philip. 2008. "Minorities at Large: New Approaches to Minority Ethnicity in Vietnam,"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3(3): 3-43.
- Trinh Quoc Su. 2000. "A Glimpse of the Thai in North-West Vietnam," *Vietnamese Studies*, Special Issue: Thai Studies (II) 2: 8-18.
- "Hòa Bình", https://vi.wikipedia.org/wiki/H%C3%B2a_B%C3%A0nh (검색일: 2017년 6월 23일).
- 호아빙성인민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oabinh.gov.vn/> (검색일: 2017년 6월 23일).

Abstract

Local History and Self-Confined Ethnic Identity of the Táy:

An Ethnographic Study of Mai Châu, Hòa Bình Province in

Northern Vietnam

CHOI Ho Rim

Division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Táy ethnic identity and their incorporation into the modern nation-state of Vietnam, mainly focused on the local history of the Táy villages in Mai Châu, Hòa Bình Province. This study includes oral histories of the local Táy people and their contact with others, since their settlement in the Mai Châu valley about seven centuries ago, such as aboriginal hill tribes, Chinese invaders, French colonialists, Vietnamese revolutionary state, ethnic majorities or the Kinh, and other ethnic groups. However, the main parts of the paper contains the various stories of turbulent times, since 1940s, of revolution, war and the building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This study shows that the process of becoming part of the modern nation-state of Vietnam as national minorities involves both fixed and self-confining of the Táy. They have been confined and fixed by the state and powerful others through the ethnic classification project, collectivisation policies, and ritual reform. Yet their lives and identity have also constructed and

self-confined by Táy people themselves in the dynamic contexts of historical process. They were already settled in the Mai Châu valley and living with wet-rice cultivation before the Vietnamese government came along. Also, they have had a hierarchical society and political relations among themselves for long time based on their own class structure.

Keywords: Vietnam, Ethnic Minorities, the Táy, Mai Châu, Local History